

KIA 시즌 첫 스윙승...4연승 신바람



8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 경기 7회말 2사 1,3루에서 KIA 김선빈이 1타석 역전 적시타를 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넥센에 4-3 역전승...김선빈 주말 2차예 결승타
팻딘 6이닝 2실점...임기준 공 1개로 승리 투수



▲ 광주전적(8일)	
넥센 001 000 200	3
KIA 000 101 20X	4

△승리투수= 임기준(1승) △세이브투수= 김세현(1패 3세) △패전투수= 이보근(1승 1패) △홈런= 김하성 2호(7회2점·넥센), 버나디나 3호(4회1점), 이명기 1호(6회1점·이상 KIA)

KIA 타이거즈가 '9회 무사 3루'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시즌 첫 싸움에 승을 성공했다.

KIA가 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4-3 승리를 거뒀다. 앞서 헛타와 양현종이 나란히 승리투수가 되면서 위닝 시리즈를 쟁겼던 KIA는 주말 3연전 마지막 대결에서도 승리를 가져오면서 스윙을 기록했다. 연장 승부 끝에 9-6 승리를 거뒀던 지난 SK전에 이어 4연승이기도 하다.

팻딘이 6.1이닝 2실점으로 분투를 했지만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는 3번째 세이브를 수확한 김세현이었다.

김재현과 이정후에 연속안타를 맞으면 3회를 시작할 3회. 팻딘이 먼저 실점을 했다. 하지만 4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버나디나가 중앙 담장을 넘기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6회 1사에서는 부진에서 벗어난 이명기가 마수걸이 홈런을 터트리면서 2-1을 만들었다.

두 개의 홈런으로 리드를 가져왔지만, 역시 홈런에 승부가 뒤집혔다.

7회 1사 1루에서 팻딘이 김윤동에게 마운드를 넘겨주고 내려왔다. 하지만 김윤동이 첫 타자 김하성에게 역전 투런포를 허용하면서 팻딘의 승리가 날아갔다.

김윤동이 박병호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지만 안타와 볼넷으로 흔들리자 KIA 불펜이 다시 움직였다. 2사 1·2루에서 임기준이 투입됐고, 임기준은 공 하나로 임병욱을 2루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급한 불을 끄었다.

리드를 내준 KIA가 7회말 바로 반격에 나섰다.

넥센 선발 신재영이 물러난 뒤 두 번째 투수로 나온 김성민에게 최형우가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안치홍이 중견수 플라이로 돌아섰지만 서동욱이 1타석 만에 시즌 첫 안타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최원준의 안타성 타구를 2루수 김지수가 잡아채면서 투 아웃이 됐지만, 대타 나지완의 적시타에 이어 김선빈도 역전 적시타를 터트리면서 4-3을 만들었다.

4-3에서 마지막 9회가 시작됐다.

마무리 김세현의 출발은 좋지 못했다. 선두타자 김하성에게 볼 3개를 연달아 던진 김세현은 풀카운트에서 좌중간 펜스 맞는 3루타를 허용했다. 무사에 주자가 3루



김세현

로 향했고, 박병호-조이스-김민성 등 한 방 있는 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 김세현은 힘으로 맞붙어 박병호와 조이스의 방망이를 헛뜰게 했다. 특히 조이스와의 승부에서는 직구 3개로 헛스윙 삼진을 유도했다. 그리고 김민성까지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1점 차의 승부를 지켰다.

김세현은 "(김하성 타석 때) 공이 그렇게 멀리 갈 줄 몰랐다.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승부를 했다. 감독님께서도 다음 공격도 있으니까 편하게 하라고 하셨다"며 "조이스는 공격적으로 하려고 했다. 지난 해 홈런 맞은 적이 있어서 힘으로 누르고 싶었다"고 말했다.

넥센과의 첫 대결에서 3타점을 올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던 김선빈은 이날은 결승타의 주인공으로 기록됐다.

김선빈은 "그동안 타격감은 나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 앞에서 선배들이 편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며 "무조건 해결하려는 생각은 했다. 잘 맞은 타구가 아니었는데 운이 따랐다. 팀이 이기는 데 도움이 됐지만 전체적인 결과는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타구 질 등이 좋지 못해서 아쉽다. 더 좋은 경기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임기준은 타선의 도움 덕에 공 하나로 승리투수가 됐다. 역대 19번째 기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LB 소식

류현진 대타 삼진 당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선발 등판이 불발된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대타로 경기에 나왔으나 삼진으로 물러났다.

류현진은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4-4로 팽팽하게 맞서던 연장 12회초 타석에 들어섰다.

원래는 투수 조시 필즈 타순이었다. 대타를 기용하려고 한 다저스는 이미 타자 자원을 모두 소진한 터라 투수인 류현진을 내보냈다.

류현진은 레예스 모론타와 2볼-2스 트라이크로 맞서다가 6구째 시속 156km 포심 패스트볼에 파울팁 삼진으로 돌아섰다. 12회말, 랜리 안선이 등판하면서 류현진이 들어가 있던 7번 타자 자리도 안선이 차지했다.

류현진은 오는 9일 샌프란시스코전에 등판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경기 가비로 취소되면서 등판 일정이 오는 12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으로 밀렸다.

전날 선발투수 예정이던 일본인 선발투수 마에다 겐타는 이날 4-4로 맞선 7회말 중간계투로 등장해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두 차례 출루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안타와 볼넷으로 두 차례 출루하면서 팀의 5-1 승리를 이끌었다. 적으로 만난 동갑내기 오승환(토론토 블루제이스)은 벤치에서 팀 패배를 지켜봤다.

추신수는 8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전날까지 3경기 연속 홈런으로 끌어 올린 경기 감각을 이날도 이어갔다.

1회말 첫 타석에서는 토론토 선발투수 마커스 스트로먼에게 1루수 땅볼로 잡혔지만, 1-0으로 앞선 3회말 선두타자로 나와서는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갔다.

추신수는 5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볼넷으로 출루했다. 이는 텍사스 타선의 도화선이 됐다.

다음 타자 루그네드 오도어도 볼넷을 골랐다. 1사 후 마자라 타석에서 스트로먼의 보크가 나와 추신수와 오도어가 2·3루로 진루했다. 마자라는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조이 갈로가 우월 2루타를 날려 추신수와 오도어가 득점했다. 유릭스 프로파르와 후안 샌테노이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점수는 5-1까지 벌어졌다. /연합뉴스



이범호 손목 골절 4주 결장 "빼줬어야 했는데"

덕아웃 T 특특

▲코치님이 사주신 가방인데 = KIA 막내 유승철은 얼마 전 서재응 투수 코치에게 만화 캐릭터 스핀지백이 그려진 백팩을 선물 받았다. 투수조 막내의 역할 중 하나는 물당번이다. 봉지에 물병을 담아 옮기는 모습을 본 서 코치가 물병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선물한 것이다. 분신처럼 가방을 챙겨 다녔던 유승철은 지난 주말 LG와의 잠실 원정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 발을 동동 굴린 유승철은 결국 인터넷 쇼핑을 통해 똑같은 가방을 샀다. 유승철은 "코치님이 사주신 가방인데 잃어버렸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똑같은 가방이 있어서 샀다"며 직접 구입한 가방을 메고 물당번 임무를 완수했다. <사진>

▲빼줬어야 하는데 = 김기태 감독에게는 마음 아픈 이범호의 부상이다. 이범호는 지난 6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최원태의 공에 맞아 오른손 중수골 미세 골절 부상을 입었다. 4주 정도 반갑스를 해야 하는

상황. 타격 부진으로 고생했던 이범호는 앞선 SK와의 연장 승부에서 역전 결승 홈런을 터뜨렸지만, 홈런 이후 타석에서 부상을 당했다.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던 만큼 더 아쉬운 부상. 김기태 감독은 "날도 춥고 휴식을 줄 생각을 했었다. 오더 짜면서 뻔까 생각했는데 베스트 멤버로 갔다. 빼줬어야 하는데"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첫 볼넷이었어요 = 볼 하나에 웃고, 볼 두 개에 운 임기준이다. 임기준은 8일 공 하나를 던지고 행운의 승리투수가 됐다. 임기준은 2-3으로 뒤진 7회 2사에 등판해 공 하나로 2루 땅볼로 아웃카운트를 잡고 내려갔다. 그리고 임기준은 다음 공격에서 KIA가 4-3 역전에 성공하면서 승리 요건을 얻었다. 9회초 김세현이 티프 세이브를 하면서 승리투수가 된 임기준. 공 하나로 기분 좋은 기록을 만든 임기준이지만 전날 경기에선 공 두 개에 아쉬운 기록이 남았다. 지난 7일 5-1로 앞선 7회 등판한 임기준은 이정후를 우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운 뒤 중전안타로 내보낸 임병욱은

도루 실패로 처리됐다. 그리고 세 번째 타자 김하성과의 승부. 조구 스트라이크를 던졌지만 볼 두 개가 연달아 나오자 김기태 감독이 2볼 1스트라이크에서 투수를 임창용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임창용 역시 볼 두 개로 경기를 시작하면서 볼넷이 됐다. 그리고 야구 규칙에 의해 볼넷은 임기준의 것으로 기록됐다. 임기준은 "시즌 첫 볼넷이었어요. 모르셨어요?"라며 첫 볼넷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애라 모르겠다 = 절박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김선빈의 손이 움직였다. 김선빈은 지난 6일 2-3으로 뒤진 5회 2사 만루에서 우익선상으로 타구를 보내 주자들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오버런을 하다가 2루로 급하게 귀루를 하면서 가까이로 세이프 판정을 받은 김선빈. 비디오 판독 과정에서 절묘하게 상대의 태그를 피해 왼손으로 베이스를 터치하는 김선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선빈은 "사실 죽었다고 생각했다. 애라 모르겠다하면서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는데 세이프다 됐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

KIA, MLB급 '마제스틱' 유니폼 입는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앞으로 2년간 '마제스틱' 유니폼을 입는다.

KIA는 지난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조계현 단장과 방병성 케이엔코리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후원 조인식을 가졌다.

케이엔코리아는 올해부터 2년간 KIA 선수들의 유니폼과 바람막이, 후디, 폴오버, 재킷 등 30종가량의 의류와 야구용품을 지원한다.

챔스필드 투어 참가자 모집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투어' 제10기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챔피언스 필드 투어는 경기장 및 선수단 시설 곳곳을 둘러본 뒤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오는 14일(토) 롯데전에 맞춰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그라운드 및 라커룸(원정팀), 실내연습장 및 웨이트 트레이닝실을 돌아본 뒤 선수단 훈련을 관전하고, 3루측 K7석에서 경기를 관람한다.

참가비는 3만원으로 참가자에게 사인볼, 마스코트 볼캡, 예코백, 방한제 등 다양한 기념품이 주어진다.

투어 참가 신청은 9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sports/baseball/event/120)를 통해 이뤄지며, 선착순 40명이다. (문의 마케팅팀 070-7686-8043)

한편 이번 투어는 KIA의 비전(Team 2020)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인 '베이스컬(baseball+culture+Base-cu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